

2023. 2. 10.(금) 석간용

이 보도 자료는 2023년 2월 10일 오전 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 부서: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

식품정책과장	정진숙	02-2133-4700
--------	-----	--------------

식품안전팀장	차원경	02-2133-4730
--------	-----	--------------

담당자	김나령	02-2133-4745
-----	-----	--------------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2쪽

관련 누리집 (메뉴)

<http://www.seoul.go.kr/news>

〈유통부터 소비까지, 우리 밥상을 안전하게〉

서울시 '시민안전밥상지킴이' 첫 운영... 17일까지 모집

- 시, 소비 증가하는 가정간편식, 무인판매점 제품 안전관리 감시체계 강화
- '시민안전밥상지킴이' 식품위생 전문성있는 시민 40명 모집해 활동 예정

서울특별시에서는 최근 가정간편식, 무인판매점 이용이 급증하고 있어 시민이 식품의 제조에서 유통·소비까지 단계별 안전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'시민안전밥상지킴이'를 모집·운영한다.

○ 최근 저출산·고령화, 비혼율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,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양식으로 식품 소비패턴이 급변하고 있다. 또한 온라인 유통이 식품산업의 주요 축으로 부상됨에 따라 식음료 배달 서비스 및 가공식품 전자상거래, 무인판매점 이용 가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.

올해 처음 운영하는 서울시 '시민안전밥상지킴이'는 시민 스스로 위해 식품을 감시하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·위생 관련 자격을 갖춘 영양사, 위생사 등 총 40명을 모집한다.

- 시민안전밥상지킴이 모집은 2.17.까지 진행한다.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(<http://www.seoul.go.kr/>) 내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.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식품정책과(02-2133-4745)로 문의하면 된다.

- 서울시 1기 ‘시민안전밥상지킴이’는 ▲ 온라인 유통식품(가정간편식 등) 무신고 판매 행위, 매체별 식품표시법(식품정보, 허위·과대광고 등)을 상시 모니터링하며, ▲ 25개 자치구와 함께 무인판매점(무인카페 등)을 권역별 전수 조사해, 부적합한 경우 연 4회 순회 방문지도를 수행한다. 앞으로 2년간 온·오프라인 식품위생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.

- 시는 시민안전밥상지킴이를 시작으로 기존 식품사고 수습 중심의 사후 관리에서→ 사전·예방적 식품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고, 이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‘시민의 안전한 밥상’의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.

- 서울시는 식생활 소비 양상이 급변하는 만큼 시민의 식품 안전관리 요구가 높아져 앞으로 제조-유통-소비까지 과정 전반에 걸쳐 식품 단계별 감시체계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.

-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“‘시민안전밥상지킴이’ 같은 활동으로 시민 스스로 안전한 밥상을 지키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”고 말했다.